

中庸思想의 再吟味

李 賢 宰

▲ 편집자주 : 이 시리즈는 당초 편집자나 筆者가 共感하는 분들의 寄稿가 답지될 것을 期待하면서 通卷 43號(89.9.5 刊)부터 실패의 結果는 단독으로 어려운 集필을 계속해 주심에 대해 該간 애독해 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號로 大尾가 됨을 아쉬워하는 바입니다.

미국 카터행정부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부레진스키박사는 그의 저서 “크나큰 실패”(The Grand Failure)를 통해 공산주의가 이론과 실천의 통합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셨으며 각국 공산당간의 독트린(doctrine)과 행동통일 역시 종언(終焉)을 맞게 되었다고 못박았다. 동구(東歐) 공산체제의 변질과 해체현상에 따르는 새로운 시대의 전개를 예견한 것이다.

오늘날 소련이 안고있는 딜렘마는 경제적 위기타개를 위해 정치적인 안정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 민족분규 등 연방의 내부통제력에 견잡을 수 없는 파랑(波浪)이 인 것이다. 막상 정치적 안정쪽으로 회귀하자니 경제운용상의 숙제가 그대로 쌓여가는데 고뇌하고 있는 것이 국외자(局外者)의 눈에도 훤히 비친다.

경제부진으로 인한 인민의 기본적 수요(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데서 비롯된 공산세계의 사회불안은, 동시에 그들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에 대한 당지도층의 자신감의 상실로도 노출된다.

거의 모든 공산권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주의주장(主義主張)이나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믿지않게 되었으며 현재와 장래에의 길잡이가 될 교과서를 잃은채 방황하고 있는 양상(樣相)이 역력하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양극화시대에서 다극화 다원화시대로의 이행(移行)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과 우익, 유물론과 유심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등 일도양단(一刀兩斷)의 양분법으로 편을 가르고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흑백논리가 도처에서 판을 치운 암울한 냉정구조에 비해보면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맛보게 된다.

볼셰비키혁명이후 70년에 걸쳐 피로써 다져온 거대한 적색 이데올로기제국의 붕괴는 마치 조락(凋落)의 늑가울처럼 황량하기만 하다. 어떤이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려 하는 Marx·Lenin주의의 체질이 최신과학과 하이테크에 의한 탈(脫)공업화사회의 복잡다기(複雜多岐)함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는데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에는 어딘가 모자라는 구석이 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세계가 그들의 도그마(dogma)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오른 편으로 닦아서기를 거부하는 사이에 자본주의 체제쪽은 사회복지, 사회정의라는 간판을 앞세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발걸음을 차츰 옮겨 섰다는 것—그리하여 이른바 혼합경제(混合經濟)를 도입하여 자체의 모순과 병폐를 극복하고 치유한 것이 주효(奏效)한 것 아닐까. 요컨대 자본

주의는 그동안 자체의 틀속에 갇혀 있질 않고 상대 쪽을 과감히 수용하여 탈바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용(中庸)을 얻은 셈이 된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근저(近著) “권력이동”(Power Shift)의 결론부분에서 권력의 과잉집중이나 과소집중이 다같이 사회적 공포상태를 가져온다면 어떤 정도의 권력집중을 과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판단할 도덕적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가설적 문제제기와 아울러 문명사회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부과되는 질서나, 한 정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질서는 부도덕한 질서라고 매도(罵倒)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서”(socially necessary order)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용지도(中庸之道)를 강조한 것 아니고 무엇이라.

이제 중용주의는 한갓 처세훈(處世訓) 또는 경세(經世)철학의 차원을 넘어 범세계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공백(空白)을 메우면서 위대한 조절자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 지나치다 할 것인가.

사실 중용철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적 가치체계로서 동서양에 걸치어 공통적인 뿌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화된 「中庸」이 곧 덕(德)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해서 극단적인 행동양식을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중용이며 덕이라는 것이다. 그는 극단을 악(惡)이라고까지 단정했다. 이에 반해서 덕은 양극의 중앙에 자리하는 것으로 예컨대 용기는 비겁과 만용이라는 두 극단의 한가운데서 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은 극단을 피하고 중용을 지향하는 덕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중용론의 핵심이다. 그는 어떤 행동이 덕스러운, 행동인가를 가늠하려거든 무엇이 양극단간의 중핵(中核), 중추(中樞)인가를 판별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이 손쉬운 일이 아니고 고도의 인격을 구현하여 온전한 인간이 됨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도학(道學)의 단절을 우려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사서(四書)중의 하나인 「중용」에도 “인색과 사치의 어중에 절검(節儉)이 있으니 중용의 덕이다”고 서술한 대목이 나온다. 또한

집양용중(執兩用中)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양극단을 붙잡고 그 근본인 중간자를 활용하라는 뜻이리라. 이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중집(中執), 중정(中正), 중심(中心)의 이치다.

가령 알에서 새가 생긴 것이나, 새에서 알이 생긴 것이냐하는 양극의 다름도 알과 새의 근원인자(根源因子)인 생명(生命)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당초에 생명이 없고서는 새와 알이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렇듯 천하만물의 근본되는 중(中)과 천하만사의 법칙되는 화(和)를 극진히 하여 그 구경(究竟)에 이르게 되면 천지의 운행도 순조로와 제자리를 잡게 되고 만물이 고루 화육(化育)될 것이라 하였다. 이 얼마나 호호탕탕(浩浩蕩蕩)한 우주론(宇宙論)이요 생명철학인가.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中庸 第一章)

“웃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웃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몸을 바르게 하여 남에게 구하지 않으면 원망될 일이 없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리없는 위치에 자리하여 천명(天命)을 기다리는데 소인은 험난한 것을 행함으로써 요행을 바란다. 공자도 말씀하지 않았던가. 활쏘는이는 군자와 닮았으니 정곡(正鵠)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그 몸자세의 바르지 않는데 원인을 구한다고……”(中庸 제14장). 진실로 오늘의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수신(修身)치기(治己)의 기본이다.

문명비평가로서의 임어당(林語堂)은 “하늘은 실재(實在)가 아니지만 지구는 실재다. 실재하는 지구와 실재 아닌 가공(架空)의 하늘사이에 우리들이 태어난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을 통털어 관장하는 중용의 신(神)덕분에 세상 모든 일이 그런대로 풀려나가는 것 아니냐”는 재미있는 말을 남기고 있다. 또한 그는 “인생문제를 논하는 고금동서의 철학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사물양극단의 중간, 어디인가에

있는 알맞는 생활의 교의(敎義) 즉 절반절반(Half and Half)의 교의라 할 수 있는 중용의 교의보다 더 나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단언한다.

그가 묘사한 중용적 생활의 모습에도 멋이 흐른다. “서화(書畵)나 골동품따위를 수집은 하되 선반에 진열해 놓을 정도에 그치고 독서는 꾸준히 하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않으며 학문도 상당히 할지언정 전문가는 안된다. 글은 쓰지만 간혹 신문잡지에 기고(寄稿)가 실릴 정도—” 균형감각이 발달한 중산층의 생활이상(理想)이라고나 할까…….

유교의 현실주의적 적극주의와 노장(老莊)의 풍자(諷刺)주의적 자연주의를 함께 소화해서 이룩했다고 보여지는 중용철학이야말로 가장 인간미(人間味)있는 철학이다. 다만 범용(凡庸)한 속에 심오(深奧)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에 반식자(半識者)는 소홀히 하기 쉽고 대중들은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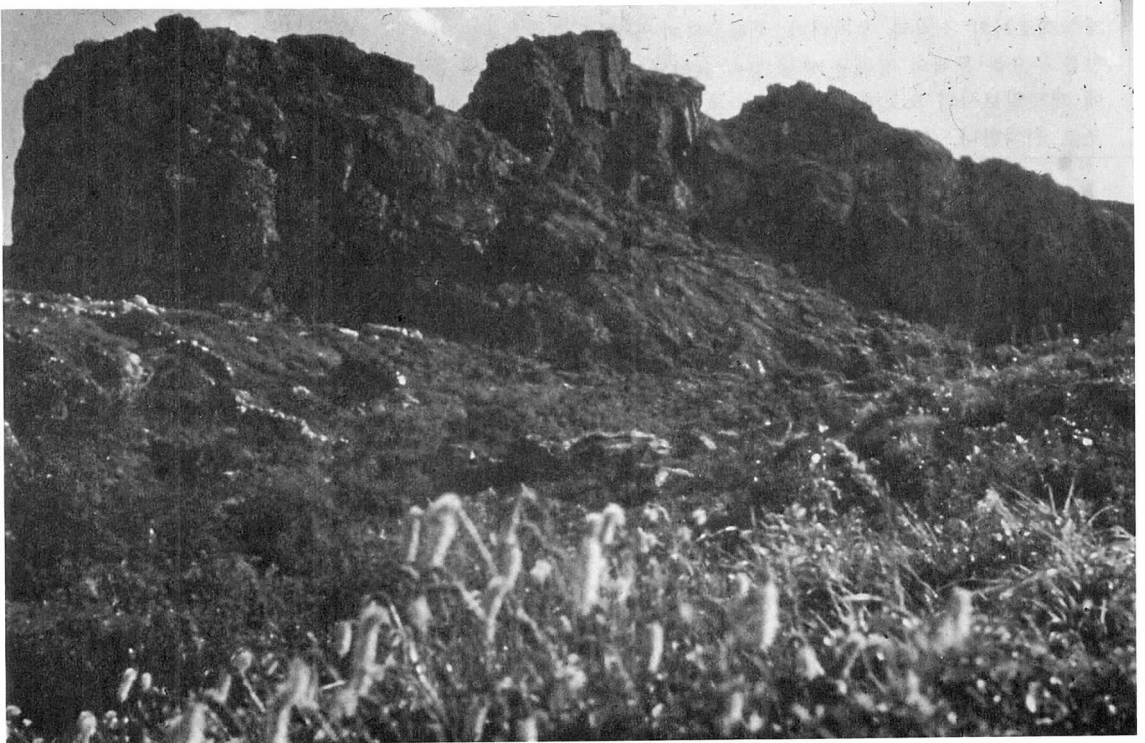
“도(道)가 행해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지식있는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도가 밝지 못함을 내가 안다. 어진이는 지나치고 불초한

자는 미치지 못한다. 사람이 마시고 먹지않는 이가 없지만 맛을 잘 아는 이는 드물다”고 공자는 탄식한 바 있다. 중용을 터득하는 것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중용의 덕을 기르는 실천강령으로서 가장 요긴한 것을 들어보라 한다면 한마디로 「성」(誠)이다. 지성(至誠)이요 정성(精誠)이며 성실(誠實)이다. 오로지 성을 ① 널리 배우고(博學之) ② 살펴물으며(審問之) ③ 삼가생각하여(慎思之) ④ 밝혀가리면서(明辨之) ⑤ 돈독하게 실행하라(篤行之) 그리하면 비록 우매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똑똑해질 것이고 비록 약할지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中庸 제二十장)

“오직 천하의 지성(至誠)만이 능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하여 천하의 대본(大本)을 세울 수 있다”(中庸 제三十二장)고 한 중용사상이야말로 고금동서, 온천하를 중통(中通)하는 일류보편의 사상임에 틀림없다.

[筆者：本會理事・前國會議員・初代國立公園委員]



▲象王峰 또는 牛頭峰으로 불리는 伽倻山 정상(1,430m)